

익산시, 시민체육기반 한층 업그레이드

종합경기장·실내체육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위해 360여억원 투입 리모델링 실시

익산시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주 개최 도시로서 각 대회의 개최식 및 전국체전 12개 종목, 장애인체전 5개 종목의 경기가 익산종합운동장 등 총 29개소에서 치러졌거나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관련 체육시설들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의 체육열기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0시부터 성화 봉송으로 체전 분위기를 한껏 조성, 성대한 개막식을 연출한 익산시는 종목별 경기장과 숙소에 익산시 홍보를 위해 전국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들의 격려위문단과 응원단을 배정하여 한 치의 누수도 없는 스포츠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익산시청 펜싱부는 여자 사브르 김지연 개인전

금메달, 남자 예체 개인전 권영준 은메달과 육상부는 여자 원반던지기 조혜림 은메달, 남자 800m 이상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익산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이번 체전 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 약 360억 원을 투자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경기장을 찾은 육상연맹 관계자는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기를 치러 봤지만, 전국체전을 통해 방문하게 된 익산시의 경기장 시설이 전국 어디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며 “다른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전국(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하여 백제문화유산 고도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과 발맞추어 익산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로 다시 찾고 싶은 익산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미래 세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군산시-롯데몰 군산점, 취약계층 아동지원 업무 협약

아동친화도시 군산시의 롯데몰 군산점(지점장 이건우)은 18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그 가정의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여름나기 및 겨울나기사업 등 대상 아동의 생애주기별, 시기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

이러 군산교육지원청 송명호 행정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 사업에 군산시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산교육지원청도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모기 퇴치용품 등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발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만 12세)들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아동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안심귀가 프로젝트 사업 시행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시민들이 야간에 학교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 14억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가로등 확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까지 학교 앞 통학로의 가로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는 학교 앞 조도개선 사업과 학교 내 운동장 등에 LED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지원 사업으로 올해 월명중학교 외 7개 학교의 통학로를 선정, 우선적으로 LED 가로등 104등을 교체했다.

또 교육지원청 역시 적극적인 참

여와 협조로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LED 가로등은 기존 등에 비해 전기요금이 50%정도 절감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설치하는 태양광 가로등 역시 낮 시간에 전기를 생산·저장해 야간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주변 가로등 확충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및 학교 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최영환 건설과장은 “학교주변 가로등 확충 사업을 통해 학교가 안전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군산교육지원청 송명호 행정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 사업에 군산시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산교육지원청도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금연구역 점검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현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18명을 6개반으로 편성해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공중이용시설 9,972개소,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



호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은파호수공원 등의 금연 고시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행복한 부모-자녀아카데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오는 20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결혼 10년 이내 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모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회 모두 참여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떠나는 여

행-호암미술관 및 에버랜드에서 추억 만들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아버지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고 이를 통해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구수연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의 역할을 강화해 자녀 양육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KTX 익산역 광장 체전 맞이숲 조성

익산시가 2018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익산의 관문인 익산역에 조성한 KTX 익산역 광장 체전맞이숲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착공된 이 사업은 방문객

고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4억 원(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시행됐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푸른 익산 가고 싶은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2022년까지 도시숲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